

# 자가지각 검사에 의한 자기개념 연구 (I): 대학생의 우울 및 자기상과 관련하여

박 금 주

오산전문대학 유아교육과

김 근 영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어린 아동에서 성인에 걸쳐 6개의 도구로 구성된 Harter의 자가지각 검사를 사용한 일련의 자기개념 연구 중 하나로 대학생들 그 대상으로 하였다. 남녀 대학생 732명이 조사대상자였으며 평균연령은 19.5세였다. 지각한 자신의 능력을 측정하는 Harter의 자기개념과 정서·사회성측면에서의 자기개념을 측정하는 자기상 검사(OSIQ)를 실시하였고, 동시에 우울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자가지각 검사의 하위영역 중 자기가치감 영역이 다른 영역들을 가장 잘 대표하는 영역이었으며, 자기상 검사 하위영역과도 상관이 높았으며, 또 우울에 가장 설명력이 큰 영역이었다. 그러나 자가지각 검사개념보다 자기상의 하위영역이 우울을 더 잘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핵심어 : 자기개념·우울·대학생·자가지각검사·자아상 검사·자기가치감

## 서 론

자기개념에 대한 심리학적 새로운 관심은 지난 20년 간 계속되어 왔다. 최근 들어서는 특히, 발달심리학자, 성격이론가, 사회학습 이론가, 인지적 귀인 이론가, 그리고 임상심리학자들을 중심으로 자기개념 이론에 대한 연구들이 다시 새로이 시도되고 있다. 발달심리학자들은 개인이 지닌 자아·자기개념의 구성체와 그리고 그것의 발달과정

에 관해, 특히 발달의 연속성과 비연속성에 관해 관심을 보여 왔으며, 최근 들어서는 인지능력과 사회화 경험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한 자아의 발달과정에 초점이 집중되고 있다. 즉, 개인의 행동, 태도, 경험에 기능적 역할을 하며, 개인의 성격, 대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자로서 자기개념의 중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또 이것은 개인으로 하여금 사회적 지지집단을 선택하게 하고, 이로 인해 긍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능한다 (Harter, 1990; 이춘재, 1996; Wintre & Crow-

ler, 1993).

자기개념의 하위영역으로 특히 중요시되는 개념으로서 '자기가치감'이 있는데, 이는 자신이 한 개인으로서 전반적인 자신을 얼마나 좋아하는 것이다. 자기가치감에 대해서는 두가지 이론적인 설명이 있다. 하나는 James(1892)의 이론에 근거하여 중요한 차원에 대한 자신의 능력을 규명하는데서 자기가치감이 비롯된다는 설명이다. 또 하나는 Cooley(1902)의 looking-glass self 개념으로부터 나온 사회적 지지나 긍정적 대우, 즉 자신이 중요하다고 보는 타인의 인정이나 지지에서 자기가치감이 이루어진다는 설명이다. Harter는 이 두 가지 모두를 지지하는 경험적 자료들을 제시하였다(Harter, 1990). 또 자기 존중감과 같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부적응에 영향을 끼치며, 특히 우울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이와 같은 자기존중감이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지라고 보고하고 있다(Baumeister, 1990; Beck, 1975; Blatt, 1974; Seligman & Peterson, 1986). 예컨대 우울증으로 분류된 청소년환자의 경우 80%가 낮은 자기가치감을 지니고 있었다(Marold, Harter, & Whitesell, 1993).

이와 같은 측면에서 교육심리학자 및 임상심리학자들은 자기개념, 자기상, 그리고 자기가치감등을 평가하는 민감한 도구가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자기 개념에 대한 중요성이나 필요도에 비한다면 이를 측정해내는 민감한 도구의 개발 노력은 의외로 미비하다.

지금까지 알려진 아동기의 자아개념과 도구를 살펴보면, 기존의 대표적인 자기 개념 관련 검사로 Self-Concept Scale (Piers, 1969; Piers & Harris, 1964)과 Self-Esteem Inventory (Coopersmith, 1967) 등이 있다. Piers-Harris의 초기 도구는 단일차원의 자아개념 검사였으나 이후 Coopersmith는 능력 차원 외에 동료관계, 가족관계, 자아에 관한 일반적 기술에 관한 차원으로 자

아개념을 구분하였다. 그에 따르면 자아개념이란 복잡한 위계모형으로 되어 있어 크게 학업적 자아개념과 비학업적 자아개념으로 나누어지며, 학업적 자아개념이란 구체적인 학교교과들에 관한 것이며 비학업적 자아개념은 다소 더 복잡하여 여기에는 사회적 자아개념, 정서적 자아개념, 신체적 자아개념이 포함된다. 또 이것은 자기 하위 영역들을 가지고 있어 더욱 세분화된다. 따라서 좀더 다차원적인 자아개념 측정도구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Harter(1982, 1990)는 기존 아동용 자기평가 척도들이 갖는 문제점 중에 각 검사에서 채택한 자기개념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점과 각 척도를 이루고 있는 문항들이 비구조적임을 보완하여 서로 분명히 구분되는 여러 차원의 소검사로 이루어진 척도를 개발하였다. 그녀는 아동이 모든 자기개념의 하위차원에서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서로 다른 차원을 각각 평가하도록 했을 뿐 아니라 전반적인 자기 가치감은 각 차원의 합과는 별도로 상위적 개념으로 따로 구성하여, 직접적으로 자신을 하나의 인간으로 좋아하는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에 포함되는 문항으로는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자신의 삶의 방식을 좋아한다, 자신이 다른 사람이었으면 한다, 자신에 대해 행복하다, 자신이 좀 다르기를 바란다" 등이 있다. 이상의 이론적인 고려 외에도 Harter는 측정상의 척도구성의 문제를 보완하여 하위척도 간의 요인적 타당도를 지니며 각 하위척도의 신뢰도가 우수한 도구를 개발하여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를 여러 연령집단에서 보이도록 하였다(곽금주, 1996).

먼저 Harter(1982)는 아동용 지각된 능력 척도(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를 제작하였고, 다시 이를 기초로 하여 취학전 아동에서 성인까지의 광범위한 검사도구를 개발하였다. 각 검사도구는 검사에 포함되는 차원의 성격

에 따라 크게 세가지 부류(어린이동용, 아동및 청소년용, 성인용)로 검사도구를 분류할 수 있다. 이를 다시 세분화하여 어린 아동 용 검사에는 취학전 아동용과 국민학교 1, 2학년용이, 그리고 나이 든 아동용, 청소년용, 그리고 대학생용과 일반 성인용의 모두 6가지 도구들이 현재 개발되어 있다. 그 하위영역을 보면 어린 아동용 지각된 능력과 사회적 수용 그림검사 (Pictorial Scale of Perceived Competence and Social Acceptance for Young Children)는 일반적 능력과 사회적 수용의 2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취학전의 어린 아동용과 국민학교 1, 2학년용의 두가지가 있다. 그 위의 연령에 속하는 아동용 자기지각 검사(Self-Preception Profile for Children)는 학업적 능력(scholastic competence), 사회수용성(social acceptance), 운동능력(athletic competence), 외모(physical appearance), 품행(behavioral competence), 그리고 일반적 자기가치감(general self-worth)의 여섯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용 검사(Self-Perception Profile for Adolescents)에는 이외에도 이성관계(romantic relationship), 우정(close friendship), 직업능력(job competence)등 세가지 차원이 더 포함된다. 성인용에는 좀더 차원들이 분화되어 도덕성(morality), 지성(intelligence), 훈육(nurturance), 직업능력(job competence), 유머(sense of humor), 공급자로서의 적당성(adequacy as a provider), 가사(household management), 친밀한 관계(intimate relationship), 사회성(sociability), 신체적 매력(physical appearance), 운동능력(athletic competence), 그리고 일반적 자기가치감(general self-worth)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령이 증가하면서 점차로 구성 구인들이 더 첨가되어 감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연령이 높아감에 따라 자기개념이 더욱 분화되어 감을 의미한다. 대학생용 검사의 하위차원들은 직업능력, 학업적 능

력, 사회적 수용, 신체적 매력, 부모 관계, 우정, 지적 능력, 도덕성, 이성관계, 유머, 창의성, 운동능력, 자기가치감등 13개 차원이 포함된다. 여기에는 아동용과 청소년용에 속하는 일부 차원과 성인용에서의 일부 차원이 포함되어 있다. 즉 대학생을 청소년에서 성인의 어느 한 쪽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으며,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Harter는 대학생용 도구를 따로 개발 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자기개념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Harter의 척도는 일반적인 자신의 능력에 관한 개념을 측정하는 것으로 사회적,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자기개념을 측정하는데는 그다지 민감하지 못하다. 이와 같은 사회적, 정서적 측면에서의 자기개념을 보다 잘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는 Offer, Ostrov, 및 Howard(1982)의 자기상 검사(Offer Self-image Questionnaire: OSIQ)가 있다. 이것은 10년 동안 종단적인 연구 자료를 근거로 하여 11개 하위영역의 130문항에서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하는 도구로, 정신과의사와 임상심리학자에 의해 개발되어 정상적인 청소년 뿐 아니라 비정상적인 청소년을 대상으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5개국어로 번안하여 미국외 유럽, 중동및 아시아 제국의 15개 이상의 국가에서 정상, 비행 청소년 및 신체적, 심리적으로 지체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Petersen, Schulenberg, Abramowitz, Offer, 및 Jarcho (1984)은 이것을 고학년의 초등학교 학생에 해당하는 좀 더 어린 연령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어린 연령에 적합한 9개 영역의 98문항으로 축소하여 청소년용 검사를 제작하였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연구에서 사용되었다 (곽금주, 1995 : 곽금주, 문은영, 1993, 1995 : 이춘재 곽금주, 1994 : 이춘재, 1996). OSIQ의 경우 원래 청소년용으로 제작되었으나 문항 내용 (예를 들어 '성'에 관한

문항)이 우리나라의 중고등학생 연령에게는 잘 맞지 않는 것들이 있으며, 오히려 대학생에게 실시하는데 무리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따라서 Harter의 자기지각 척도를 사용한 일련의 연구 중 하나로서 우리나라 대학생의 하위영역별 자기개념 특성, 또 이와 OSIQ의 하위영역간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에 덧붙여 부정적 자기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우울감을 측정하여 자기개념과 우울 간의 관계 또한 알아보고자 하였다.

## 방 법

### 조사대상자

서울과 근교 대학교 남녀 대학생 743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석대상에 포함된 전체 학생 수는 732명(남자 432, 여자 300)이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19.5세이다.

### 측정도구

본 연구의 검사도구로 Harter의 대학생용 자기지각 검사와 심리사회적 발달정도를 측정하는 자기상 검사(OSIQ), 그리고 우울 척도(Revised CES-D-K)를 사용하였다. 세 도구를 보다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Harter의 대학생용 자기지각 검사(self-perception profile for college students): 아동용에서 성인에 걸친 자기개념 검사 중 Neumann과 Harter(1986)에 의해 개발된 대학생용 자기개념 검사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13개 영역으로 되어 있으며 각 영역이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자기가치감 영역만 6개 문항으로 되어 있다. 영문으로 된 검사도구를 본 연구자가 한글로 번안하

고 이것을 다시 한국어와 영어에 능통한 교포가 다시 영어로 번안하여, 서로 합의에 의해 문항을 제작하였다(곽금주, 1996). 각 영역은 다음과 같다.

#### a. 직업능력(job competence)

‘대학생으로서의’ 직업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영역으로, 아르바이트 또는 하고 있는 일, 또는 새로운 직업에 대해 얼마나 자신감을 느끼며 만족하는가를 측정하는 문항이다.

#### b. 학업적 능력(scholastic competence)

자신이 영리하고 학교 수업시간에 잘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이 영역은 Harter의 자기개념의 다른 척도에서도 중요한 차원이며, 특히 지적능력(intelligent ability)차원과 비교되어 관심을 끄는 차원이다.

#### c. 사회적 수용(social acceptance)

동성의 친구관계나 사회적 관계에서 유능한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자신의 사회적 기술에 대한 만족도, 얼마나 친구를 쉽게 사귀는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d. 신체매력(appearance)

자신의 신체에 만족하는지 또는 자신의 외모나 몸매가 달라졌으면 하고 바라는지를 측정하는 영역이다.

#### e. 부모관계(parent relationship)

부모와 함께 지내는 것 그리고 부모가 하는 방식에 대해 얼마나 일치감을 느끼는 가를 측정하는 영역이다.

#### f. 우정(close friendship)

친구를 사귄 능력에 대해, 그리고 친구가 없어 소외감을 느끼는지 아니면 잘 지내는지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g. 지적 능력(intellectual ability)

학업능력 영역보다는 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서, 얼마나 전반적으로 자신을 영리하고 똑똑하다고 지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되어 있다.

h. 도덕성(morality)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는 영역이다.

i. 이성관계(romantic relationship)  
이성과의 낭만적인 관계를 얼마나 잘 하는지, 새로운 관계를 얼마나 잘 만들어 내는지를 측정하는 영역이다.

j. 유머(humor)  
자신이나 친구들에게 여유 있게 웃음으로 대처할 수 있는가 하는 능력에 관한 영역이다.

k. 창의성(creativity)  
자신의 창의성이나 새로운 것을 고안하는 특성에 관한 지각을 측정하는 영역이다.

l. 운동능력(athletic competence)  
다른 이에 비해 자신이 운동을 잘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m. 자기가치감(self-worth)  
이 영역은 한 개인이 전반적인 자신에 대한 감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 가치롭다고 생각하고 또 만족하는지에 관한 문항으로 되어 있다.

각 하위영역의 신뢰도계수 (Cronbach's  $\alpha$ )는 직업능력 .70, 학업적 능력 .68, 사회적 수용 .66, 신체매력 .90, 부모관계 .75, 우정 .82, 지적능력 .81, 도덕성 .63, 이성관계 .73, 유머 .70, 창의성 .88, 운동능력 .87, 그리고 자기가치감이 .81이었다.

2) 자기상 검사 (Offer Self-Image Questionnaire-Revised) : Offer의 자기상 검사는 Offer, Ostrov, Howard 그리고 Dolan(1991)이 정상 청소년들에 실시하기 위해 제작한 자기 보고형 척도로 1992년에 다시 개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홍강의, 김봉석, 신민섭(1995)이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표준화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OSIQ-R은 총 129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

에 대해서 '나를 가장 잘 나타내준다.'에서 '나를 전혀 나타내 주지 못한다.'까지의 6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전체 문항에 답한 점수를 합산하여, 다시 문항 수로 나누어 그 평균점수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전체 문항들은 12개의 하위 구성 척도, 즉 정서 상태, 충동 통제, 정신 건강, 사회적 기능, 가족 기능, 직업에 대한 태도, 자신감, 자기-신뢰, 신체상, 성(性), 윤리적 가치, 이상주의로 구분된다. 10개의 중요한 하위 구성 척도 점수들을 합산하여 전체 자아상(total self-image) 점수를 산출하게 된다. 각 하위 척도가 측정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 정서상태 (emotional tone)

10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울과 같은 정서 상태와 정서적 불안정성을 측정한다.

#### b. 충동조절 (impulse control)

긴장 방출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지, 자아가 다양한 압력에 대처할 만큼 강한지를 측정하는 9항목으로 이루어진 척도이다. 낮은 척도점수는 좌절을 견디는 힘이 약하고, 즉각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 c. 정신건강 (mental health)

1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낮은 척도점수는 정신치료가나 약물치료를 요하는 정도와 심한 정신병리를 나타낸다.

#### d. 사회적 기능 (social function)

9문항으로 이루어진 척도로서, 대인 관계와 교우 관계의 패턴을 평가한다. 낮은 척도점수는 대인관계가 어렵고,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낸다.

#### e. 가족 기능 (family function)

청소년들의 부모에 대한 감정과 부모와의 관계를 평가하는 척도로, 총 19문항이다. 낮은 척도점수는 청소년들이 부모와 잘 지내지 못하고 가족구성원들을 비지지적이라고 느끼며, 가족 내에서 긴

장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한다.

f. 직업에 대한 태도 (vocational attitudes)

청소년들이 학업과 직업에 대한 계획에서 얼마나 자신 있게 느끼는가를 평가하는 척도로,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낮은 척도 점수는 학교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합리적인 목표를 세우지 못한 것을 나타낸다.

g. 자신감 (self-confidence)

청소년들이 당면한 상황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를 평가하며,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점수가 낮을 수록 상황에 대처하는데 있어 자신이 무능력하다고 느끼는 것을 나타낸다.

h. 자기 신뢰도 (self-reliance)

이 척도는 14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신과 다른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 대해 얼마나 잘 대처하는지를 평가한다. 이 척도는 자아 강도(ego strength)를 평가하는 것으로 규정된다.

i. 신체상 (body image)

9항목으로 이루어진 척도로, 청소년들이 사춘기 변화 등 자신의 신체에 잘 적응하는 정도를 평가한다. 낮은 척도 점수는 사춘기에 따른 신체적 변화를 불편하게 느끼고 자신의 외모가 매력적이지 못하다고 느끼는 것을 반영한다.

j. 성 (sexuality)

청소년들의 이성애에 대한 감정과 태도, 그리고 행동을 평가하는 척도로,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척도 점수가 매우 낮거나 높을 때 성에 대한 태도나 행동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낸다. 낮은 점수는 성에 대해 두렵게 느끼고 이성과의 관계에서 철회 행동을 보이는 반면, 너무 높은 점수는 지나치게 성에 개방적임을 시사한다.

k. 윤리적 가치 (ethical value)

양심이나 초자아의 발달을 평가하는 척도로,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점수가 낮을 수록 초자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

l. 이상주의 (idealism)

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청소년들의 이상(ideals)과 타인을 기꺼이 돕는 정도를 평가한다. 낮은 점수는 자기 중심적이고 타인을 자신의 욕구 충족 수단으로 보는 것을 나타낸다.

각 하위척도의 신뢰도계수(Cronbach's  $\alpha$ )는 정서상태 .60, 충동조절 .69, 정신건강 .71, 사회적 기능 .77, 가족기능 .87, 직업태도 .56, 자신감 .47, 자기신뢰도 .63, 신체상 .62, 성 .64, 윤리적 가치 .52, 그리고 이상주의가 .40이었다.

3) 우울: 한국어판 역학연구-우울척도(Revised Korean Version of the Center for Epidemiologicdepression Scale: Revised CES-D-K)를 사용하였다. 이것은 현재의 우울증상을 주로 정서적인 측면에서 자기보고하는 20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 척도는 임상적 목적이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우울한 기분을 측정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Robinson, Shaver, Wrightsman, 1991). Noh, Avison 및 Kasper (1991)가 이 척도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캐나다의 한국교포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4개의 문항을 첨가한 '개정된 한국어판 역학연구-우울 척도'를 중심으로 '역학연구-우울 척도: 청소년용'에 부가된 2개 문항을 더하여 총 26개의 문항들로 구성된 척도로, 이미 여러 연구에서 사용되었다(곽금주, 문은영, 1993, 1995; 김정민, 1992). 이 척도는 우울한 기분, 죄책감, 무가치감, 무기력감, 심리운동적 지체상태, 식욕의 상실, 수면장애등을 주로 반영한 것이다.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8이었다.

## 결 과

Harter의 자기 지각검사 하위영역에 따른 남녀의 평균값은 표1과 같으며, 학업 능력, 부모관계, 우정, 도덕성, 이성관계 영역을 제외하고는 남자

표 1. 자기지각 검사와 자기상 검사 하위영역과 우울에서의 남녀 평균값

| 문항     | 전체    | 여     | 남     | T       |
|--------|-------|-------|-------|---------|
| 자기개념검사 | 2.54  | 2.62  | 2.49  | 4.95*** |
| 직업능력   | 2.56  | 2.66  | 2.49  | 3.76*** |
| 학업적 능력 | 2.39  | 2.42  | 2.37  | 1.33    |
| 사회적 수용 | 2.55  | 2.61  | 2.51  | 2.03*   |
| 신체 매력  | 2.34  | 2.42  | 2.29  | 3.96*** |
| 부모관계   | 2.81  | 2.82  | 2.80  | .43     |
| 우정     | 3.10  | 3.13  | 3.08  | .96     |
| 지적능력   | 2.44  | 2.58  | 2.34  | 5.46*** |
| 도덕성    | 2.67  | 2.70  | 2.64  | 1.51    |
| 이성관계   | 2.24  | 2.27  | 2.22  | 1.10    |
| 유머     | 2.54  | 2.64  | 2.47  | 3.68*** |
| 창의성    | 2.44  | 2.50  | 2.40  | 2.27*   |
| 운동능력   | 2.58  | 2.75  | 2.45  | 5.27*** |
| 자기가치감  | 2.40  | 2.51  | 2.32  | 4.28*** |
| 자기상검사  | 3.99  | 4.09  | 3.93  | 5.63*** |
| 정서상태   | 3.77  | 3.90  | 3.68  | 5.07*** |
| 충동조절   | 3.75  | 3.92  | 3.63  | 5.94*** |
| 정신건강   | 3.94  | 4.07  | 3.85  | 5.09*** |
| 사회적 기능 | 4.04  | 4.10  | 4.00  | 1.89    |
| 가족기능   | 4.43  | 4.55  | 4.34  | 4.13*** |
| 직업태도   | 4.50  | 4.56  | 4.47  | 2.45*   |
| 자신감    | 3.81  | 3.91  | 3.74  | 4.75*** |
| 자기신뢰도  | 4.12  | 4.21  | 4.06  | 4.05*** |
| 신체상    | 3.77  | 3.91  | 3.68  | 4.86*** |
| 성      | 3.90  | 4.02  | 3.81  | 4.36*** |
| 윤리적 가치 | 4.40  | 4.43  | 4.38  | 1.23    |
| 이상주의   | 3.47  | 3.46  | 3.48  | -.32    |
| 우울     | 46.59 | 43.66 | 48.55 | 6.40*** |

\* $p < .05$ , \*\*\* $p < .001$ 

에 비해 여자가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Harter의 자기지각 검사 도구의 타당도를 살펴 보기 위하여 자기상 검사와 상관관계를 냈다(표 2와 표 3). 이것에 의하면 두 척도들의 하위개념들은 모두 다른 하위영역 및 전체척도와 대체로 높

은 상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높은 상관은 자기지각검사와 자기상검사의 하위유형들을 서로 비교했을때도 뚜렷하게 드러났는데, 단지 자기개념 검사의 '이성관계'요인과 자기상 검사의 '이상주의', '성', '윤리적 가치', 그리고 '가족기능'

표 2. 자기지각검사의 하위영역간 단순상관

|       | 부모관계   | 우정     | 지적능력   | 도덕성    | 이성관계   | 유머     | 창의성    | 운동능력   | 자기가치감  |
|-------|--------|--------|--------|--------|--------|--------|--------|--------|--------|
| 전체    | .32*** | .57*** | .70*** | .46*** | .55*** | .44*** | .64*** | .46*** | .77*** |
| 직업능력  | .13*** | .33*** | .57*** | .24*** | .34*** | .24*** | .49*** | .26*** | .62*** |
| 학업능력  | .09*   | .20*** | .57*** | .22*** | .22*** | .09*   | .36*** | .13*** | .46*** |
| 사회수용  | .16*** | .45*** | .35*** | .17*** | .32*** | .33*** | .34*** | .22*** | .52*** |
| 신체매력  | .01    | .08*   | .24*** | .20*** | .23*** | .08*   | .17*** | .16*** | .29*** |
| 부모관계  | —      | .22*** | .03    | .23*** | .07    | .06    | .03    | .03    | .23*** |
| 우정    |        | —      | .23*** | .16*** | .21*** | .30*** | .28*** | .17*** | .34*** |
| 지적능력  |        |        | —      | .36*** | .35*** | .20*** | .55*** | .21*** | .55*** |
| 도덕성   |        |        |        | —      | .14*** | .06    | .20*** | .17*** | .34*** |
| 이성관계  |        |        |        |        | —      | .14*** | .34*** | .21*** | .40*** |
| 유머    |        |        |        |        |        | —      | .24*** | .14*** | .30*** |
| 창의성   |        |        |        |        |        |        | —      | .25*** | .39*** |
| 운동능력  |        |        |        |        |        |        |        | —      | .20*** |
| 자기가치감 |        |        |        |        |        |        |        |        | —      |

\* $p < .05$ , \*\*\* $p < .001$ 

표 2. 계 속

|       | 전 체 | 직업능력   | 학업적능력  | 사회적수용  | 신체매력   |
|-------|-----|--------|--------|--------|--------|
| 전체    | —   | .75*** | .58*** | .65*** | .37*** |
| 직업능력  |     | —      | .58*** | .46*** | .24*** |
| 학업적능력 |     |        | —      | .27*** | .16*** |
| 사회적수용 |     |        |        | —      | .10**  |
| 신체매력  |     |        |        |        | —      |

\* $p < .05$ , \*\*\* $p < .001$ 

표 3. 자기상검사의 하위영역간 단순상관

|       | 사회적 기능 | 가족 기능  | 직업 태도  | 사회적 기능 | 자신감    | 신체상    | 성      | 윤리적 가치 | 이상주의    |
|-------|--------|--------|--------|--------|--------|--------|--------|--------|---------|
| 전체    | .70*** | .65*** | .65*** | .66*** | .73*** | .72*** | .43*** | .55*** | .40***  |
| 정서상태  | .61*** | .36*** | .34*** | .43*** | .48*** | .56*** | .28*** | .29*** | .27***  |
| 충동조절  | .34*** | .46*** | .34*** | .44*** | .43*** | .49*** | .18*** | .36*** | .32***  |
| 정신건강  | .50*** | .47*** | .38*** | .46*** | .46*** | .58*** | .29*** | .31*** | .15***  |
| 사회적기능 | —      | .32*** | .41*** | .39*** | .51*** | .46*** | .30*** | .33*** | .16***  |
| 가족기능  |        | —      | .45*** | .34*** | .41*** | .38*** | .14*** | .35*** | .27***  |
| 직업태도  |        |        | —      | .49*** | .62*** | .35*** | .16*** | .46*** | .24***  |
| 사회적기능 |        |        |        | —      | .57*** | .45*** | .23*** | .23*** | .19***  |
| 자신감   |        |        |        |        | —      | .46*** | .29*** | .35*** | .17***  |
| 신체상   |        |        |        |        |        | —      | .34*** | .22*** | .19***  |
| 성     |        |        |        |        |        |        | —      | .11**  | -.12*** |
| 윤리적가치 |        |        |        |        |        |        |        | —      | .34***  |
| 이상주의  |        |        |        |        |        |        |        |        | —       |

\* $p < .05$ , \*\*\* $p < .001$

표 3. 계 속

|      | 전 체 | 정서상태   | 충동조절   | 정신건강   |
|------|-----|--------|--------|--------|
| 전체   | —   | .74*** | .71*** | .77*** |
| 정서상태 |     | —      | .49*** | .66*** |
| 충동조절 |     |        | —      | .59*** |
| 정신건강 |     |        |        | —      |

\* $p < .05$ , \*\*\* $p < .001$ 

등 4가지 요인과의 상관만은 유의하지 않았다.

Harter가 자기지각검사를 개발할 때 척도내 하나의 요인인 자기가치감의 효과를 강조하였기 때문에 이 요인의 효과에 대해 검증하였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자기가치감은 다른 변인들과 상당히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어, 이 변인이 자기개념의 전반적인 수준을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것을 시사하였다. 또한 자기가치감은 자기상 검사의 하위영역들 간에도 상당히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표 4), 자기상 검사의 하위요인

들을 대상으로 한 중다회귀분석에 의하면 자기상 검사 영역중 6개 영역이 자기가치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5).

자기가치감의 정도에 따라서 각각 상, 중, 하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집단간 다른 영역과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자기지각 검사뿐만 아니라 자기상검사의 모든 하위영역들에 있어 유의미한 주효과가 있었다. 즉 자기가치감이 높은 대학생은 중간수준의 자기가치감 및 낮은 자기가치감을 보인 대학생들에 비해 모든 자아개념 하위척도에서

표 4. 자기가치감과 자기상 검사의 하위영역간 단순상관

| 요인    | r      | 요인    | r      | 요인   | r      |
|-------|--------|-------|--------|------|--------|
| 정서상태  | .58*** | 충동조절  | .48*** | 정신건강 | .66*** |
| 사회적기능 | .45*** | 가족기능  | .33*** | 직업태도 | .24*** |
| 자신감   | .49*** | 자기신뢰도 | .38*** | 신체상  | .58*** |
| 성     | .20*** | 윤리적가치 | .17*** | 이상주의 | .24*** |

\* $p < .05$ , \*\*\* $p < .001$ 

표 5. 자기가치감에 영향을 주는 자기상 검사의 하위영역들

| 변인명  | Beta | Multiple R | R <sup>2</sup> | F         |
|------|------|------------|----------------|-----------|
| 정서상태 | .25  | .58        | .34            | 373.72*** |
| 자아상  | .26  | .66        | .43            | 274.27*** |
| 자신감  | .23  | .68        | .47            | 211.66*** |
| 정신건강 | .17  | .69        | .48            | 165.26*** |
| 직업태도 | -.13 | .70        | .48            | 136.49*** |
| 이상주의 | .11  | .70        | .49            | 118.50*** |

\*\*\* $p < .001$

유의미하게 점수가 높았다. 다만 자가지각검사의 ‘학업적 능력( $F_{731.2} = 4.92, p < 0.01$ )’, ‘부모관계( $F_{731.2} = 2.88, p < .05$ )’, 그리고 ‘창의성( $F_{731.2} = 94, p < .01$ )’ 요인에 있어서는 성차와의 상호작용이 있어, 학업능력과 창의성에서는 남성이, 부모관계에 있어서는 여성이 더 자기가치감 수준에 의해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가지각 검사의 하위영역에서 우울에 영향을 주는 영역들을 알아보기 위하여 stepwise 중다회귀분석을 한 결과(표 6), 자기 가치감이 가장 설명력이 큰 변인이었다. 그러나 자가지각과 자기상의 모든 영역을 포함시켜 우울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한 결과(표 7), 정신건강, 정서상태, 신체상, 충동조절, 자신감과 같이 자기상 검사 영역들이 설명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논 의

심리학의 여러 영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되고 있는 자기 개념에 관해 본 연구에서는 아동과 청소년 연구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Harter의 자기 지각 검사를 사용한 연구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Harter는 어린 아동에서 성인까지 같은 구인이 포함된 6개의 도구를 개발하였다. 자기개념이란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이라는 점에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그 하위영역이 증가한다. 그 중에서 대학생용 검사(Harter, 1986)는 Harter의 검사도구 중 비교적 가장 최근에 개발된 것으로 다른 도구에 비해 그 연구가 많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검사의 일부 영역만을 가지고 연구된 것(이춘재, 박혜원, 박금주, 황상민, 1995; 이춘재, 1996)과 어린 유아를 대상

표 6. 우울에 영향을 주는 자가지각검사 영역

| 변인명   | Beta | Multiple R | R <sup>2</sup> | F         |
|-------|------|------------|----------------|-----------|
| 자기가치감 | -.29 | .49        | .24            | 224.35*** |
| 우정    | -.13 | .52        | .27            | 130.44*** |
| 지적능력  | -.15 | .54        | .29            | 94.71***  |
| 부모관계  | -.09 | .54        | .29            | 73.17***  |
| 이성관계  | -.08 | .55        | .30            | 60.03***  |
| 유머    | -.08 | .55        | .31            | 51.26***  |

\*\*\* $p < .001$

표 7. 우울감에 영향을 주는 영역들

| 변인명  | Beta | Multiple R | R <sup>2</sup> | F         |
|------|------|------------|----------------|-----------|
| 정신건강 | -.30 | .64        | .41            | 480.86*** |
| 정서상태 | -.23 | .68        | .46            | 295.43*** |
| 신체상  | -.15 | .69        | .48            | 213.81*** |
| 충동조절 | -.10 | .70        | .49            | 165.56*** |
| 자신감  | -.08 | .70        | .49            | 134.89*** |

\*\*\* $p < .001$

으로 한 연구(유효순, 1996) 등이 있다. 이외 아동, 청소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일련의 연구가 현재 진행 중인데 그 중에서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 대학생은 Harter(1986)의 결과와 비교해 훨씬 낮은 자기 개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성별로 볼 때 사회적 수용, 부모관계, 우정영역을 제외하고 여자가 남자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내나, 미국의 경우는 우정영역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그리고 신체적 매력, 운동능력 영역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자기지각 검사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을 포함하고 있는 어떤 인지적인 측면에서의 자신을 알아보는 도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서적인 기능이나 사회적 기능 차원에서의 자기개념을 좀 더 알아보고, 또 Harter척도의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기상 검사(OSIQ)를 실시하였다. 이것은 정서적, 심리사회성 발달을 측정하여 자기개념을 알아보는 것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자기지각 검사와 자기상 검사의 상관관계를 보면 모든 하위영역 간에 있어서 높은 상관을 나타내고 있어 자기지각 검사도구의 타당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성관계' 영역이 자기상 검사의 '이상주의, 윤리적 가치, 가족기능'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상관을 보인 것은 아직 우리나라 대학생의 이성관계가 다른 영역과 일관성을 보일 만큼 안정된 자기 개념이 형성되지 않음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겠다.

자기지각 검사의 하위영역 중 자기가치감 영역은 다른 영역과 높은 상관을 보일 뿐 아니라 자기상 검사와도 높은 상관을 나타내 전반적인 자기개념을 설명하는 총체적인 영역이라는 Harter의 설명을 지지한다. 그리고 자기지각 검사의 하위영역

에서 우울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 역시 기존의 연구결과들(Harter & Jackson, 1993; Marold, Harter, & Whitesell, 1993)과 일치된다. 그러나 자기지각과 자기상의 모든 영역을 포함시켜 우울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알아본 결과 자기상 검사 영역들이 설명력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자기상 검사가 정서적, 병리적인 측면을 측정하는 도구이므로 우울과는 더 상관이 높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자기가치감 영역이 자기개념을 대표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요인이며, 또 정신건강적, 정서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자기개념을 알아보는데 자기상 검사가 더 설명력이 크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본 연구에서 밝히지 못한 제한점으로는 자기개념의 남녀 차이가 미국의 대학생과 다른 점에 대해서는 그 설명을 찾을 수 없었으며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다른 결과들도 청소년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들이 분석된 후에 더 완벽하게 논의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곽금주 (1995). KLSSA검사에 의한 청소년기 삶의 만족도.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연구**, 2(1), 29-43.
- 곽금주 (1996). 오산 전문대학생의 전공에 따른 자기개념의 특성. **오산전문대학 산업기술연구소보**, 2, 139-153.
- 곽금주·문은영(1993). 청소년기의 심리적 특징 및 우울과 비행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6(2), 29-43.
- 곽금주·문은영(1995). 심리적 특징 및 우울과 비행간의 관계(II) : 청소년기 이전기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8(1), 1-11.
- 유효순 (1996). 애착의 안정도와 유아의 자아지

- 각.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9(1), 110-120.
- 이춘재 (1996). 자기상으로 본 청소년의 심리, 사회적 발달(II) : 인문고와 특수목적 고등학생들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9(1), 154-166.
- 이춘재 · 광금주 (1994). 자기상으로 본 청소년의 심리, 사회적 발달(I) : 연령에 따른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7(2), 119-135.
- 이춘재 · 박혜원 · 광금주 · 황상민 (1995). 전자게임 이용과 아동. 청소년의 심리 및 사회적 행동. 성곡논총, 26, 273-387.
- 홍강의 · 김봉석 · 신민섭(1995). 한국판 Offer 자아상 척도 표준화 연구. 미발표 논문
- Baumeister, R. F. (1990). Suicide as escape from self. *Psychological Review*, 97, 90-113.
- Beck, A. T. (1975). *Depression: Causes and treatments*. Philadelphia, P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Blatt, S. J. (1974). Levels of object representation in anaclitic and introjective depression.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 29, 107-157.
- Cooley, C. H. (1902). *Human nature and the social order*. New York: Scribner.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CA: W. H. Freeman.
- Harter, S. (1982).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87-97.
- Harter, S. (1990). Processes underlying adolescent self-concept formation. In R. Montemayor, G. R. Adams, & T. P. Gullota (Eds.),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Transitional period*.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
- Harter, S. & Jackson, B. K. (1993). Young adolescents' perceptions of the link between low self-worth and depressed affect.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3(4), 387-407.
- James, W. (1892). *Psychology: The briefer course*. New York: Henry Holt.
- Marold D. B., Harter, S., & Whitesell, N. R., (1993). *Dimensions of depression among an inpatient sample of adolescents with psychiatric diagnoses of depression*.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Denver.
- Neemann, J. & Harter, S. (1986). *Manual for the Self-Perception Profile for College students*. Denver, CO: Univ. of Denver.
- Petersen, A. C., Schulenberg, J. E., Abramowitz, R. H., Offer, D., & Jarcho, H. D. (1984). A self-image questionnaire for young adolescents(SIQYA): Reliability and validity studi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3(2), 93-111.
- Piers, E. & Harris, D. (1966). The Piers-Harris Children's Self-concept Scale. *Research Monograph 1*. Nashville, TN: Counselor Recordings and Tests.
- Offer, D., Ostrov, E., Howard, K. I. (1984). *Patterns of adolescent self-image*. San Francisco, CA: Jossey-Bass Inc.
- Offer, D., Ostrov, E., Howard, K. I., & Dolan, S. (1984). *Self-Image Questionnaire Revised*. San Francisco, CA: Jossey-Bass Inc.
- Seligman, M. E. P., & Peterson, C. (1986). A learned helplessness perspective on childhood depression: Theory and research. In M. Rutter, C. E. Izard, & P. B. Read (Eds.), *Depression in young people: Develop-*

*mental and clinical perspectives* (pp. 223-249).

New York: Guilford.

- Wintre, M. G., & Crowley, J. M. (1993). The adolescent self-concept: A functional determinant of consultant prefer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2(4), 369-383.

## **Self-Concept Development of the collegiate students : Focusing on Harter's Self-Perception Profile**

**Keum-Joo, Kwak**

**Department of Infant Education**

**Osan College**

**Geun-Young, Kim**

**Department of Psychology**

**Yunsei Vniversity**

As one of the research series using Harter's Self-Perception Profile, this study was aimed to investigate the self-concept of the collegiate students, and the effect of general self-worth components. 732 collegiate students were administered with Harter's Self-Perception Profile for College Students, Offer Self-Image Questionnaire, and Revised Korean Epidemiological depression Scale. As predicted, the general self-worth component of the SPP was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 predicting depression, as well as highly correlated with other components of the SPP and the OSIQ. Generally however, the components of the OSIQ were more reliable and more important in explaining depression. The results implied the nature of the two questionnaires, especially in clinical and in cross-cultural setting.

**Key Words : self-concept·depression·college students**

**Self-Perception Profile·Offer's Self-image Questionnaire, General self-worth.**